



즉시 배포용: 2017년 1월 2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공항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근무 중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로 뉴욕주 공항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대중교통 근로자 보호법 (Transportation Worker Protection Act)

공항 근로자 폭행에 대해 최대 7년 동안 수감가능한 클래스 D 중범죄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폭력으로부터 공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뉴욕주 전 지역의 다른 대중교통 근로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중교통 근로자 보호법 (Transportation Worker Protection Act)에 따르면 공항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교도소에서 최대 7년까지 수감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클래스 D의 중범죄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수요일에 발생한 John F. Kennedy 국제 공항의 무슬림 직원에 대한 최근 보고된 공격에 따른 것입니다. 주지사는 공항 근로자 노동조합 32BJ (Airport Workers' Union 32BJ)의 조합장인 Hector Figueroa와 함께 한 뉴욕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직업, 인종 또는 종교에 기인하여 개인이 학대당하거나 폭행당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근로자 보호법 (Transportation Worker Protection Act)은 교통 근로자에 대한 공격에 대비한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중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편협함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상하원과 협력할 것입니다.”

Hector Figueroa 공항 근로자 노동조합 32BJ (Airport Workers' Union 32BJ)의 조합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공항 직원들은 승객 수백만 명의 안전과 보안을 지켜주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는 거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공항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조치입니다.”

대중교통 근로자 보호법 (Transportation Worker Protection Act)

뉴욕주의 버스, 지하철, 경전철 시스템, 공항에서 근무하는 대중 교통 근로자들은 매년 수억 명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근무 중인 버스 운전기사, 열차 운전기사, 티켓 검사원, 차장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직원에 대한 공격은 클래스 D의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 범주의 대중교통 직원 안에 공항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모든 모호성을 없애서 대중교통 근로자의 범주 안에 공항 근로자를 분명하게 포함시키며 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공항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과거의 조치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연방과 뉴욕주의 공동 심사팀이 최근에 JFK에서의 비상 대응을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들을 마련했습니다. 이 검토에 기초해서, 뉴욕은 4가지 보안 권고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항 구내에 있는 모든 보안 인력들에 대한 단일하고 통일적인 운영 규약 정립.
- 연방, 주 및 지방 보안 기관들 사이의 조율된 공동 훈련 연습 실시.
- 공항 시설들에서의 소개 절차 효율화.
- 모든 공항 직원들에 대한 종합적 보안 및 비상 준비태세 훈련 의무 부과.

2014년 주지사는 또한 라구아디아 공항 및 John F. Kennedy 국제 공항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2015년 9.00 달러에서 10.10 달러로 인상하는 최저 임금 인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지사의 생활 임금법 (living wage law)은 또한 뉴욕시 공항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15 달러로 인상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최근, 증오범죄를 조사하며 뉴욕 주민들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해 지역사회 교육 활동을 실시하도록 뉴욕 주립 경찰 (New York State Police) 및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직원들로 뉴욕주 증오범죄 태스크포스 (New York State Hate Crime Task Force)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또한 증오범죄 기소 사건들 중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 검사들에게 조력할 것입니다. 이미 이 수사관들 가운데 일부는 뉴욕주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나치 문양 등 최근에 보고된 증오범죄 사건의 수사에 참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주지사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하도록 돕고, 열린 마음과 포용성을 증진하며, 모든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Dolan 추기경이 이끄는 새로운 범종교 자문위원회(Interfaith Advisory Council) 구성을 이번 달 일찍 발표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